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좋은 수업에 대한 관점 분석 -예비유아교사 및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고은현¹, 박혜림^{2*}

¹배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²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analysis of teaching perspective on good teaching for high school and higher education: pre-service teachers and teachers major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Eun-hyeon Koh¹, Hye-Rim Park^{2*}

¹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Baewha Women's University

²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수업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여 선행연구에서 밝혀왔던 좋은 수업의 세부 요소 및 특성들과 더불어 좋은 수업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수업의 우세 가치 유형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유아교육과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좋은 수업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관점을 객관적으로 지표화한 TPI를 활용하여, 예비 및 현직교사가 인식하는 좋은 수업에 대한 우세 가치 유형을 교차분석 및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증(Tukey의 HSD)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고등학교 수업의 우세가치는 학교유형과 관계없이 “양육” 관점으로, 대학교 수업은 “도제”관점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수업에 관한 연구결과는 “양육”이 우세 관점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 수업의 경우 영미권에서는 도제 관점을 우세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에서는 도제 관점이 우세하여 드러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현직 유아교사가 실습경험 없는 예비교사보다 “도제” 관점을 우세하게 인식하였다. 국내의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고찰하여 좋은 수업의 가치를 논의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급과 전공을 세분화하여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several factors of good instruction that have been studied by precedent studies as well as the dominated perspective of teaching that validates the value of good instruction. For this purpose, the authors explore an understanding of the perspective that lessons ought to pursue. The authors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dominated perspective of good instruction of pre-service teacher and teachers through the study methodology of chi-square, one-way analyses of variance, and post-hoc test. The research subjects were enrolled students and graduates of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colleges in Seoul and the Capital area. The TPI that had been objectively indexed with comprehensive understandings and viewpoints of good instruction was also applied. The study result shows that high schools' dominated perspective is "nursing" and colleges' is "apprenticing", regardless of the kind of school. The article discusses the perspective of good instruction by comparing the results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and this study. Some ideas were suggested for further research.

Keywords : good instruction, teaching perspective inventory, university instruction, high school instruc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본 논문은 2017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 Hye-Rim Park(Seoul Theological Univ.)

Tel: +82-10-3769-4114 email: edulove@stu.ac.kr

Received September 4, 2017

Revised (1st October 10, 2017, 2nd October 18, 2017)

Accepted December 8, 2017

Published December 31, 2017

1. 서론

수업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의도적인 활동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업의 질 관리는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며 교육현장에서는 교수법 연수, 수업컨설팅, 수업장학 등 교수자의 수업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좋은 수업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수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좋은 수업을 탐구하려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장경원은 좋은 수업에 대한 연구 유형을 첫째, 이상적인 수업 요소 분석 둘째, 우수한 수업 특성 탐구 셋째, 학습자 및 교수자들이 인식하는 좋은 수업 특징 도출로 구분하였다[1]. 좋은 수업은 이론가들의 이상적인 수업 모습 제시와 현실에서 인식되는 좋은 수업의 특성으로 개념화되고 있으나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좋은 수업의 특징은 시대에 따라서 속성이 달리 제시되기도 한다. 1976년 연구[2]는 교수자 중심의 수업운영 요소를 도출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명확하고 유용한 사례 전달을 주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연구자들과 교수자-학습자 간에서도 드러난다. 서경혜 연구[3]에 따르면 이론가들은 좋은 수업을 전통적인 수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구성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조망하고 있으나,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은 여전히 내용 전달이 충실한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문화적으로도 나타나는데, 이상수 외[4]는 좋은 수업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한·중의 인식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한국 교수자와 학습자는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1순위로 보고, 중국은 학생의 자발적 지식구성력을 1순위로 선정하는 차이를 보였다. 2순위에 있어 한국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신뢰로운 관계 형성을 꼽았으나 중국은 4순위로 인식하고 2순위로는 효과적인 수업내용 전달을 선정하였다.

최근의 좋은 수업에 대한 연구는 교수자 및 학습자들의 인식 분석을 통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특성들을 찾거나 인식주제, 학교급, 과목 또는 전공 등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5-10].

이러한 연구에서 제시되는 주요 내용들은 실행전략 수준에서의 분석으로 수업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실천적 함의를 담고 있다. 반면, 이러한 접근은 수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교육의 가치를 간과하며, 실행전략들을 통합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업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여 선행연구에서 밝혀왔던 좋은 수업의 세부 요소 및 특성들과 더불어 좋은 수업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수업의 우세 가치 유형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수자의 교육철학을 통해 개발된 교육관점 측정도구(TPI)를 활용하여, 고등학교와 대학 수업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고등학교 좋은 수업에 대한 우세한 수업 가치 유형은 고등학교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교 좋은 수업에 대한 우세한 수업 가치 유형은 대상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좋은 수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좋은 수업 인식 연구

좋은 수업에 대한 연구는 크게 좋은 수업이 가져야 할 특징을 제시한 연구와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 연구로 이루어져 왔다. 좋은 수업의 특징은 학교급 및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Borich는 명료한 수업,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 수업 활동에 주의하는 수업,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수업, 학생들이 높은 학습 성공률을 보이는 수업 등을 좋은 수업의 특성으로 제시하였으며[11], Johnson-Farmer & Frenn은 다양한 수업 전략의 활용,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 학습자 중심적, 적극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환경, 학생이 적극적인 질문과 학습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12].

Meyer는 좋은 수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분석 및 종합하여 일반적인 좋은 수업의 특성을 수업의 구조의 명료화, 높은 학습 몰두 시간, 학습을 촉진하는 분위기,

내용의 명료성, 의미있는 의사소통, 교수법의 다양성, 개별 학습자 촉진, 지적 연습, 확고한 성취 기대, 갖추어진 환경 등을 도출하였다[13].

최근 초·중등학교의 수업 분석의 준거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1] Zeleman, Daniel과 Hyde는 학생 중심 수업, 총체적 수업, 경험 중심 수업, 실제적 수업, 반성적 수업, 사회적 수업, 협동적 수업, 민주적 수업, 인지적 수업, 발달적 수업, 구성주의적 수업, 표현적 수업, 도전적 수업 등 13가지를 좋은 수업의 특성으로 제시하였으며[14], 대학 강의에 대해, 이회원 등은 이상적인 강의상으로 명료한 강의 목표를 가진 목표 지향적 수업, 심도 있는 전공지식을 담고 있는 수업,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 지식 체화 및 응용력 배양이 가능한 수업, 좋은 교수법을 활용하는 수업을 제시하였다[15].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은 연구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교육의 수요자 및 최종 소비자인 학습자의 인식은 좋은 수업의 특징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화진 등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활용하여 좋은 수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중학생들은 좋은 수업을 ‘재미있는 수업’과 ‘이해할 수 있는 수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상수 등은 한중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통해 좋은 수업의 특징을 한국의 경우 재미있는 수업, 이해하기 쉬운 수업, 효과적인 수업,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수업, 교사와 학습자 간의 인간적인 관계와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4].

Zimitat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좋은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교수가 설명을 잘 해주는 것, 과목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학생이 가까이 다가가기 용이한 것, 학생들에게 유용한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10].

정미경은 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교직 수업과 좋은 대학 수업의 특징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교직 수행에 도움이 되는 수업으로는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관한 수업, 교과교육학적 지식 구성에 관한 수업, 학생 이해에 관한 수업을, 일반적인 대학교육에서의 좋은 수업의 특징으로는 전문성, 창의성, 문제해결력 증진 등에서 다른 수업과는 차별되는 수업, 반성적·구성적 수업 등을 도출하였다[6].

또한, 좋은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에세이를 분석한 이은화와 김희용은 학습동기 유발,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참여, 충실한 피드백과 공정한 평가 등을 좋은 수업의 특징으로 제시하였으며[7], 박민정은 정서적·지적 만족을 주는 수업, 변화와 성숙으로 이끄는 수업,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이 활발한 수업,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수업 등을 좋은 수업의 특징으로 제시하였다[8].

대학의 좋은 수업에 대해 교수와 대학생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한 정은이는 교수와 학생들간의 상호작용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수업, 재미있고 쓸모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수업 등을 교수와 대학생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좋은 수업의 특징으로 분석하였으나, 교수들은 학생의 동기 유발을 촉진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에 기여하는 수업을, 대학생들은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밝혀냈다[9].

최근의 좋은 수업 연구는 주로 교수자 및 학습자 대상의 면담, 설문, 에세이 분석을 통한 연구대상자의 좋은 수업에 대한 암묵적 인식을 토대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객관적 도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좋은 수업에 관한 포괄적인 인식과 관점을 객관적으로 지표화한 TPI를 활용하고자 한다.

2.2 TPI를 활용한 좋은 수업 인식 연구

Pratt와 Collins, Selinger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를 인터뷰하여 교육관점을 개념화하고, 측정도구(TPI, Teaching Perspective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TPI는 교육내용 전달, 도제, 개발, 양육, 사회개혁과 같은 5가지 유형으로 수업관점을 제공한다[16]. 연구진들은 45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수년간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개발하였다[17]. 측정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한 우세 및 열세 유형으로 나타나며, 한 가지 관점이 우세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TPI 특성상 한 응답자에게서 우세 유형이 2개 이상 분석되기도 하여 연구 결과에서 유형별 백분율의 합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영미권의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은 양육(59.3%), 도제(23.6%), 개발(18.0%), 내용전달(16.0%), 사회개혁(6.2%)으로 나타났으나, 교사에 경우에는 양육(68.6%), 개발(10.0%), 도제(9.7%), 내용전달(6.1%), 사회개혁

(2.6%)으로 분석되었다[18].

국내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양육(43.4%), 도제(38.6%), 내용전달(28.2%), 사회개혁(10.2%), 개발(10.2%)로 나타났다[19].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20] 도제(39.4%), 양육(30.3%), 내용전달(15.2%), 개발(9.1%), 사회개혁(3.0%)으로 분석되었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1]에서는 내용전달(31.9%), 도제(30.7%), 양육(24.0%), 개발(8.9%), 사회개혁(4.6%) 순으로 나타나 초·중등 교사의 우세 유형과 달리 분석되었다. 초·중등 교사에게는 양육이 가장 우세하고 대학 교수는 도제, 예비교사는 내용전달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미권에서는 교사 및 예비교사 모두 양육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권과 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예비교사 및 현직 교사에게 설문하였다. 설문은 고등학교 수업에 대해서는 예비교사에서, 대학교 수업에 대해서는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에게 시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양호 응답은 고등학교 수업에 대해서 253명, 대학수업은 314명이었다(표 1, 표2 참고).

Table 1. The Respondents with teaching of High School

| Belong To | | Graduated | N (%) | Total (%) |
|-----------------------|---------------|-------------------------|------------|-------------|
| Student (pre service) | Univ. (99) | general high school | 89 (35.2) | 253 (100.0) |
| | | specialized high school | 10 (4.0) | |
| | College (154) | general high school | 124 (49.0) | |
| | | specialized high school | 30 (11.9) | |

Table 2. The Respondents with teaching of Higher Education

| | | | N | Total (%) |
|-----------------------|------------------------|-----------------|-----------|-------------|
| Student (pre service) | Univ. (103) | Pre placement | 84 | 314 (100.0) |
| | | After placement | 19 | |
| | College (137) | Pre placement | 98 | |
| | | After placement | 39 | |
| Teacher | graduated from Univ. | 32 | 74 (23.6) | |
| | graduated from College | 42 | | |

3.2 연구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좋은 수업에 관한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Collins와 Pratt이 개발한[22] TPI (Teaching Perspectives Inventory)를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교육학 박사 2인이 번역하고 영어교육학 박사 1인이 감수한 45개의 문항을 설문하였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 값은 대학수업은 .93, 고교수업은 .91로 분석되었다. 본 설문 결과는 SPSS/PC+ 21.0을 활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교차분석(카이검증) 및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증(Tukey의 HSD)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고등학교의 좋은 수업 인식: 수업 가치

고등학교의 경우 우세한 수업가치 유형을 일반 고등학교와 비일반고로 졸업유형을 구분하고 빈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출신고등학교 유형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chi^2=3.82$, $df=4$, $p=.43$). 응답자들은 양육(40.5%)을 우세 수업 가치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도제(22.4%), 내용전달(19.4%), 개발(17.0%), 사회개혁(0.7%) 순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Analysis of the most expressed teaching perspectives with high school type

| | | A | B | C | D | E | Total | $\chi^2=3.82$, $df=4$, $p=.43$ |
|---------|-------|-----------|-----------|----------|------------|---------|-------------|--|
| Group 1 | N (%) | 30 (11.9) | 57 (22.5) | 15 (5.9) | 107 (42.3) | 4 (1.6) | 213 (84.2) | |
| Group 2 | N (%) | 2 (0.8) | 14 (5.5) | 3 (1.2) | 20 (7.9) | 1 (0.4) | 40 (15.8) | |
| Total | N (%) | 32 (12.6) | 71 (28.1) | 18 (7.1) | 127 (50.2) | 5 (2.0) | 253 (100.0) | |

A: Transmission, B: Apprenticeship, C: Development, D: Nurturing, E: Social Reform / Group1: general high school, Group 2: specialized high school

4.2 대학교의 좋은 수업 인식: 수업 가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교에 따라 좋은 대학 수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분석되어 고등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4.65$, $df=4$, $p=.33$). 학제의 차이 없이 좋은 대학수업의 우세 가치로 도제(54.5%), 양육(32.5%), 내용전달(6.7%), 개발(5.1%), 사회개혁(1.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 학습 내용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유관 경험

정도에 따라 좋은 대학수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5]와 같이, 현장 경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 = 14.80$, $df=8$, $p=.06$). 응답결과 현장경험 정도와 관계없이 도제(54.5%)를 좋은 대학수업의 우세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양육(32.5%), 내용전달(6.7%), 개발(5.1%), 사회개혁(1.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Analysis of the most expressed teaching perspectives with higher education type

| | | A | B | C | D | E | Total | |
|---------|-----|-------|--------|-------|--------|--------|---------|--|
| Univ. | N | 8 | 76 | 9 | 42 | 0 | 135 | $\chi^2=4.65$, $df=4$, $p=.33$ |
| | (%) | (2.5) | (24.2) | (2.9) | (13.4) | (0.0) | (43.0) | |
| College | N | 13 | 95 | 7 | 60 | 4 | 179 | |
| | (%) | (4.1) | (30.3) | (2.2) | (19.1) | (1.3%) | (57.0) | |
| Total | N | 21 | 171 | 16 | 102 | 3 | 314 | |
| | (%) | (6.7) | (54.5) | (5.1) | (32.5) | (1.3) | (100.0) | |

A: Transmission, B: Apprenticeship, C: Development, D: Nurturing, E: Social Reform

Table 5. Analysis of the most expressed teaching perspectives with level of field experience

| | | A | B | C | D | E | Total | |
|-----------|-----------------|-------------------|---------------|-------------|---------------|------------|----------------|---|
| Student | Pre-placement | N 14 (%) (4.5) | 91 (29.0) | 8 (2.5) | 67 (21.3) | 2 (0.6) | 182 (58.0) | $\chi^2=14.80$, $df=8$, $p=.06$ |
| | After-placement | N 3 (%) (1.0) | 29 (9.2) | 6 (1.9) | 18 (5.7) | 2 (0.6) | 58 (18.5) | |
| Graduated | teacher | N 4 (%) (1.3) | 51 (16.2) | 2 (0.6) | 17 (5.4) | 0 (0.0) | 74 (23.6) | |
| | Total | N 21 (%) (6.7) | 171 (54.5) | 16 (5.1) | 102 (32.5) | 4 (1.3) | 314 (100.0) | |

A: Transmission, B: Apprenticeship, C: Development, D: Nurturing, E: Social Reform

현장경험 정도에 따라 우세 수업 가치 유형의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표 6]과 같이 도제에서만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으며($F=3.625$, $p=.028$) 사후분석 결과 현직교사($M=39.5$, $SD=4.9$)와 현장 실습 전 예비교사($M=37.9$, $SD=4.5$)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현장 실습을 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현장 경험이 거의 없는 실습 전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Table 6. Test of ANOVA and post hoc

| | | Man(SD) | F(Sig) | Tukey |
|---|------------------|-----------|-------------------|-----------|
| A | ①pre-placement | 33.5(4.9) | 2.388 (0.093) | - |
| | ②after-placement | 34.7(3.5) | | |
| | ③teacher | 34.6(4.8) | | |
| B | ①pre-placement | 37.9(4.5) | 3.625 (0.028) | ③>①, ② |
| | ②after-placement | 38.9(3.7) | | |
| | ③teacher | 39.5(4.9) | | |
| C | ①pre-placement | 34.8(3.9) | 2.742 (0.066) | - |
| | ②after-placement | 35.7(4.2) | | |
| | ③teacher | 36.0(4.6) | | |
| D | ①pre-placement | 37.3(5.1) | 0.382 (0.683) | - |
| | ②after-placement | 37.9(4.2) | | |
| | ③teacher | 7.2(5.1) | | |
| E | ①pre-placement | 30.6(5.1) | 10.481 (0.000) | - |
| | ②after-placement | 33.3(4.7) | | |
| | ③teacher | 33.0(4.5) | | |

A: Transmission, B: Apprenticeship, C: Development, D: Nurturing, E: Social Reform

5. 논의 및 결론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TPI의 5가지 유형 중에서 고등학교 수업의 우세 가치로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양육 관점이 나타났다. 고등학교에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 내용전달 가치가 우세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학습자들은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양육관점을 우세 가치로 꼽고 있어 고등학교 수업의 방향과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대학수업의 경우 전문대와 일반대에 관계없이 도제관점으로 분석되었다. 현장실습 경험이 없는 예비교사보다 현직교사가 도제관점을 보다 우세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대는 학문지향, 전문대는 직업훈련으로 그 목표가 달라 고등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우세 가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했다. 그러나 교원양성이라는 동일한 목표가 있어 우세 가치가 도제로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국내외의 TPI를 활용한 선행연구와 비교·고찰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수업은 현직교사와 예비교사 모두 양육 관점을 우세 가치로 꼽고 있었다. 둘째, 대학교 수업은 대학 교수와 재학생 및 졸업생 모두 도제 관점을 우세하게 인식하였다. 셋째, 대학교 수업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선희의 연구[22]에서는 재학생의 경우 내용전달 관점을 우세

하게 인식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으나, 도제 관점 우세 가치 인식에 있어서는 현장경험을 한 집단이 현장 경험을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넷째, 영미권의 연구[17]에서는 초·중등 교사의 경우 양육, 개발, 도제 순으로 우세 가치를 보였으나 대학 교수는 양육, 도제, 개발 관점 순으로 인식하였고 공통적으로 양육 관점을 가장 많이 꼽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 연구에서도 초·중등 교사는 양육 관점을 우세 유형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였다. 그러나 대학 교수의 경우 도제 관점을 우세하게 인식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경우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양육 관점을, 대학 수업에서는 도제 관점을 우세 가치로 꼽아 국내의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으나 영미권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렇듯 우세 가치 관점의 차이는 인식 대상의 학교급 및 조사 대상자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등학교 좋은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3-5]에서는 내용이 재미있게 전달되고 이해가 잘 되는 수업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TPI의 “내용전달”과 유사하다. 그러나 고등학교 좋은 수업의 가치는 학습자의 동기유발, 학습자 배려, 성취감 고취, 자신감 함양 등의 “양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나타나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에 초점을 두는 입시위주의 고등학교 수업의 성격이 반영되어 좋은 수업 속성으로 “내용전달”이 도출되나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수업의 가치는 “양육”으로 나타나 우리 교육현실이 처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잘 드러낸다.

둘째, 대학의 좋은 수업의 경우 국내 TPI 활용 연구에서는 “도제”를 주된 가치로 보고 있으나, 영미권에서는 “양육”이 보다 우세하게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수업에 대한 국내 연구는 동기유발, 활발한 상호작용을 주요 특성으로 도출[8-10]하여 “양육” 관점으로 나타나 영미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정미경의 연구[6]와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도제” 관점으로 나타나 영미권과 차이가 있다. 이 두 연구는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수업이 교원양성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어 내용학습 뿐만 아니라 현장적용성, 실제와의 관련성을 주요한 가치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수업의 가치, 예비교사 및 현직교

사가 인식하는 수업의 가치를 객관적 도구로 비교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TPI 연구는 대학 수업에서 주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수업과 대학 수업을 동일 대상에 설문하여 우세가치를 알아보았다. 학습자의 관점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이 지향해야 하는 시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방향을 재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교유형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거나 대학교의 전공을 보다 다양하게 조사한 분석을 세분화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학교급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점 비교 연구가 진행된다면 기존에 진행된 별도의 교수자의 인식과 학습자의 인식이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이 통합 비교 가능하여 의미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Reference

- [1] K. G. Chang,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Good Teaching Using Appreciative Inquiry”, *Korean Education Inquiry*, vol. 31, no. 1, pp. 137-160, 2014.
- [2] Feldman, K. A., “The Superior College Teacher from the Student’s view”,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 5, pp. 243-288, 1976.
DOI: <https://doi.org/10.1007/BF00991967>
- [3] K. H. Seo, “The Perspectives and Conceptions about Good Instructional Practice: An interview Study of Teachers and Student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22, no. 4, pp. 165-187, 2014.
- [4] S. S. Lee, Y. N. Lee, “Comparison of the High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Perception on 'Good Instruction'”,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vol. 18, no. 3, pp. 27-47, 2008.
- [5] H. J. Lee, S. H. Choi, W. G. Kim, C. T. Yun, M. G. Jeong, G. W. Choi,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for Differentiated Instruction in Korean Middle school Classrooms - in the Subject Areas of Korean Language & Mathematics”,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01.
- [6] M. K. Chung, “Pre-teacher’s Perception of Good College Instructional Practice in The Teacher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25, no. 3, pp. 247-264, 2007.
DOI: <https://doi.org/10.15708/kscs.25.3.200709.010>
- [7] E. H. Lee, H. Y. Kim, “Defining a “Good Instruction”: The Qualitative Study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Idea*, vol. 22, no. 1, pp. 123-146, 2008.
DOI: <https://doi.org/10.17283/jkedi.2008.22.1.123>
- [8] M. J. Park, “Students’ Perceptions of Good Teaching in Higher Education-An Essay-Review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Studies*, vol. 35,

no. 3, pp. 229-253, 2008.

- [9] E. I. J., "Perceptions by teachers and students of good teaching at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2, no. 3, pp. 25-44, 2010.
- [10] Zirnitat, C., "First year student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of good teaching: Not all things are equ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vol. 29, pp. 386-392, 2006.
- [11] Borich, G. D., *Effective teaching method*. (4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2000.
- [12] Farmer, J. F., Frenn., "Teaching Excellence: What Great Teachers Teach U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 25, no. 5, pp. 267-272, 2009.
DOI: <https://doi.org/10.1016/j.profnurs.2009.01.020>
- [13] Meyer. H., *Was ist guter Unterricht?* Berlin, 2004.
- [14] Zemelman, S., Daniels, H., & Hyde, A., *Best practice: New Standards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America's schools(second ed.)*, Portsmouth, NH: Heinemann., 1998.
- [15] H. W. Lee, H. S. Kang, Y. S. Jung, & E. Heo, "Analysis on Evaluation Inquiry of Lectures for the Improvement on University Lecture Quality - Focused on Liberal Art Courses of Engineering and Science Schools at SNU",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8, no. 4, pp. 52-63, 2005.
- [16] Pratt, D. D., Collins, J. B., Selinger, S. J., "The Teaching Perspectives Inventory", *Proceedings of the 41st Adult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Vancouver, BC, 2001.
- [17] Collins, J. B., & Pratt, D. D., "The Teaching Perspectives Inventory at 10 Years and 100,000 Respondent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Teacher Self-Report Inventory", *Adult Education Quarterly*, vol. 61, no. 4, pp. 358-375, 2011.
DOI: <https://doi.org/10.1177/0741713610392763>
- [18] Collins, J., Selinger, S., & Pratt, D., "Development and Use of the Teaching Perspectives Inventory(TPI)", *Proceedings of the 42nd AERA*. London, 2001.
- [19] Y. W. Kee, "Assessing the Teaching Perspectives of Teacher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20, no. 3, pp. 39-61, 2003.
- [20] H. L. Roh, & M. N. Choi, "Analysis of Teaching Perspectives in a Faculty of University",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pp. 195-218, 2005.
- [21] S. H. Park, "Analysis of the Perspectives about Good Teaching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in Korea*, vol. 20, no. 1, pp. 173-191, 2016.
- [22] Pratt, D. D., & Collins, J. B., *Teaching Perspectives Inventory*, Retrieved From <http://www.teachingperspectives.com>., February, 15, 2017

고 은 현(Eun-Hyeon Koh)

[종신회원]



- 2007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9년 7월 ~ 2012년 2월 : 제주대학교 기초교육원 책임연구원
- 2012년 3월 ~ 2013년 9월: 경희대학교 교육수월성연구센터 객원교수
- 2013년 10월 ~ 2015년 2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정책 연구실장
- 2015년 3월 ~ 현재 : 배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교수학습방법, 스마트러닝, 수업컨설팅 등

박 혜 림(Hye-Rim Park)

[정회원]



- 2007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9년 4월 ~ 2010년 12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한국대학평가원 연구원
- 2011년 3월 ~ 2012년 2월: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대학교육과정, 대학평가, 교수학습방법